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5일 수요일 음 5월 3일 (10물)

기상정보

맑음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복사냉각에 의해 떨어지고 낮 기온은 일사에 의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8℃ 내외로 크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0m로 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10%	제 주	0%
10%	성 산	0%
10%	고 산	0%
10%	서귀포	0%

	해뜸 05:24	달뜸 06:54
	해짐 19:41	달짐 21:33
물때	만조 11:27	간조 06:19 18:08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0/26℃
모레	흐리고 비	22/25℃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주의	매우높음

월드뉴스

일본도 편의점·마트서 비닐봉지 퇴출

'무상제공 금지' 법제화 추진

플라스틱 제품으로 가득 찬 비닐봉지.

일본 정부가 편의점과 마트, 백화점 등 소매점에서 비닐봉지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4일 보도했다.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환경상은 전날 기자들에게 법제화를 통해 사업자에게 비닐봉지 유료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도쿄 올림픽에 늦지 않도록 올해나 내년에는 (이런 정책의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적용 대상과 비닐봉지의 가격 등 정책의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유료화 대상에는 종이봉투 등 비닐 소재 이외의 봉투는 제외될 전망이며 비닐봉지의 가격은 1장당 수엔(수십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비닐봉지를 유료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소매점은 통상 무료로 비닐봉지를 나눠준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미우리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의 양이 연간 10만 톤(t)을 넘어서며 심각한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비닐봉지의 유료화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닐봉지 퇴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허상문의 에세이로 읽는 세상

운명(運命)

인간에게 운명이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며 이 힘에 따라서 삶이 영위되는 것인가. 운명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설명된다.

인간과 우주의 일체를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필연적이고 초인간인 힘에 의한 것이고, 이 힘으로 사람들은 때로는 희망을 바라며 때로는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실로 운명이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신앙하는 대단히 중요한 힘으로서 예로부터 종교와 신화, 철학과 문학의 중심사상으로 나타난다.

옛날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세 여신(女神)을 생각하였다. 인간의 탄생을 지배하며 생명을 관장하는 클로토, 인간의 일생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라케시스, 인간의 죽음을 관장하여 그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아트로포스가 그들이다. 그리스인의 신앙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운명을 주관하는 이 여신들의 손안에 있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은 함부로 변경시킬 수도 또 그것으로부터 마음대로 벗어날 수도 없다.

인간의 운명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초월적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알 수 없는 엄청난 가공의 힘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절대 존재인 하느님을 찾아 종교에 기대기도 하고, 인간 의지를 포기하고 '체념'에 빠져 살기도 한다.

세상만사가 미리 정해진 필연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상을 운명론 혹은 숙명론이라고 한다. 운명론의 특징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논리적인 인과관계 같은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에 있다. 운명론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미리 정해진 날에 죽도록 운명지어 있어서 사전에 아무리 주의나 노력을 기울여도 자신에게 닥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운명이 어떤 전능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상은 철학과 문학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운명을 문학적으로 다룬 작품은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19세기 영국 작가 토머스 하디의 '테스'라는 작품을 기억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테스라는 순진무구하던 시골 처녀가 보이지 않는 운명의 힘에 의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는 비극적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문학작품에서뿐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도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엄청난 비극적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다. 더욱이 인간 삶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순간에 다가오는 '우연'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 알 수 없이 다가온 우연은 인간과 세상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한다. 한순간의 우연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가.

멀리 동유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여행하던 사람들에게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내도 아닌 외국에서 그것도 백 년 만에 생겼다는 사고가 하필 그 배였다는 비극적 운명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어두운 운명의 그림자가 빨리 지나가고, 부디 천사 같은 밝은 운명이 나타나 모든 것을 회복해주기를 빌어본다.

〈문학평론가·영남대교수〉

열린마당

길거리 안심부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허 동 현
제주시 안전총괄과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도심한복판에서 길가던 여성과 노인에게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묻지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몰라 시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제주시에서는 갑작스런 위험에 노출됐을 때 여성,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잠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연동 벨류호텔과 제주시청 인근에 안심부스 2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안심부스 위치는 행정안전부에서 범죄와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역별 사고발생 현황과 안전수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도에 표시한 '생활안전지도 앱'의 정보를 활용해 여성밤길 치안안전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으로 선정했다.

부스의 주요 기능으로는 CCTV촬영, 외부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문닫힘 버튼, 경찰상황실과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스마트비상벨 등이 있다. 이용하는 방법은 위급상황 시 부스 안으로 피신해 문닫힘 버튼 작동 후 비상벨을 눌러 경찰상황실에 신고를 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스마트비상벨은 시청어울림 마당 여성·남성 화장실 등 9개소에 153개를 운영해 공공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때로는 안심부스같은 시설물을 설치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우리 스스로가 항상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활안전지도 앱'을 활용해 위험한 장소는 되도록 피하고, 스마트폰 안전관련 앱 서비스를 이용해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안전한 제주시 조성을 위한 가장 튼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재난피해 SOS 하세요"

오 현 규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다.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최초의 기록은 고구려 시대에 자연재해로 굶어주는 백성들이 늘어나서 을파소의 제안을 받아서 시행한 진대법이다. 진대법은 흉년이 들었거나 봄철에 곡식이 부족해 백성들이 굶주리는 일이 생기면 나라에서 빌려주고, 가을이 되어 곡식을 추수하면 갚게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 제도이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농민 구제를 위해 각 지방에 설치해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저장한 곡식으로부터 빈민을 구제했던 의창에서부터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해 상평·환곡의 제도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까지 이어져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함해 재난 발생 시 인명 포함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로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피해원인 종료 후 1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피해가 확정이 되면, 관련부서에서 주생계수단(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구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해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거나 주택이 파손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주시정 소식

2018년 기준 광업 · 제조업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9. 6. 12.(수) ~ 7. 16.(화)
○ 조사대상 : 관내 광업 ·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조사내용 :
- 조사항목 13종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등)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09호)
- 인터넷조사((http://narastat.kr/ieco, 6.12~7.10) 병행
○ 문 의 : 제주시 총무과(☎064-728-2093)

기초연금 제도 안내

○ 대 상
- 만 65세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주민등록 기준)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탈락자 중 소득과 재산변동이 있는 어르신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신청
·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봅는 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내 용
-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 2인가구 219.2만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 70% 이하인 가구
· 단독 월 최대 253,750원, 부부 2인 월 최대 406,000원 지원
- 생활이 어려우신(소득하위 20% 이하인) 어르신 가구
· 단독가구 월 최대 300,000원, 부부 2인 가구 월 최대 480,000원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491~6)

서귀포시정 소식

제8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공모전 알림

○ 공모기간 : 2019. 5. 20(월) ~ 6. 7(금) 18:00시 도착분
○ 공모주제 : 서귀포시 비경 및 문화 등 아름답고 행복한 서귀포시를 느낄 수 있는 작 중 미발표작 (한라산을 비롯한 서귀포시 지역의 풍경, 인물, 문화, 축제 등)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출 품 수 : 1인 최대 5점 (일반 3, 드론 2 / 출품료 없음)
○ 출품규격 : 칼라 및 흑백 11× 14인치 인화 후 제출
※ 사진은 최소 5MB(가로 3,000픽셀) 이상
○ 출품요령 : 신청서와 함께 작품뒷면에 출품표를 부착하여 제출할 것
※ 신청서와 출품표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소도리'에서 내려 받기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공보실
○ 시상내역 : 금상 1점 300만원, 은상 2점 각 100만원, 동상 2점 각 50만원, 입선 40점 각 10만원
○ 심사 및 발표 : 2019. 6월 중 개별통지 및 시홈페이지 게시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공보실 (☎ 760-2031, 2033)

제64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알림

○ 게 양 일 : 2019. 6. 6(목)
○ 게양방법(조기) :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달아야 함.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심한 비 · 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다시 게양함
○ 가정에서 태극기의 위치 :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함.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총무과 (☎ 760-2046)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년생 * 황금향 3년생
* 유라조생 (감귤박람회 최우수 감귤) 7년생
* 궁천 (궁천변이지) 1,2,5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레드향(무독) 천혜향(무독) 1,2,3년생
* 고림 남진해 수루미 레몬 2년생
* 한라봉 6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자갈(돌멩이) 필요하신분 연락요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